

르포 - 장성 삼서면 이상저온 낙과 피해 현장 가 보니

# “농사 지어봤자 손해...살 길 막막하네요”

4월·지난달 17일 기온변화... 137농가 136만㎡ 피해

홍로사과 90%, 부사 50% 이상 낙과

전남도 등 지자체 선거 핑계 현황조차 파악 안해

“올해처럼 심한 낙과는 처음 봅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볼 게 뻔한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22.7도까지 상승했다가 7일 뒤에는 6.3도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변화가 반복되면서 사과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8일 오후 장성군 삼서면 인근 사과 과수원에 만난 박래범(60)씨는 땅에 떨어진 사과 열매 수천개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이씨는 “그동안 낙과 피해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처럼 심한 적은 처음이다. 특히 홍로 품종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박씨는 지난해 수확한 1500상자(1상자 기준 15kg)를 넘어 내심 3000상자까지 생각했지만 수확을 하기도 전에 열매가 노랗게 변색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4~5월 전남지역에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례없는 사과 낙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씨의 사과 과수원(9917㎡)에는 막 영글기 시작한 자두 크기(지름 3cm) 사과 열매가 곳곳에 떨어져 있었다.

사과 낙과 외에도 각종 작물피해를 본 농부들은 “올해 농사 망쳤다”며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를 조사하고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6·13지방선거 업무 등을 핑계로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이상저온 때 배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과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다”며 “지난 5월17일 장성군 최저기온이

특히 장성사과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고 인기가 좋다.

하지만 이번 낙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과를 추척 조사에는 좋은 사과를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 등은 이번 사과 낙과 피해의 원인으로 극단적인 기상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신선정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담당은 “사과 낙과 현상은 일조량 부족, 저

온 등 복합적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또한 사과와 배의 경우 바람이 아닌 근층에 의해 꽃가루가 운반돼 수분이 이뤄지는 종매화(繖繖花)인데, 지난 4월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장성 뿐만 아니라 다른 전남의 지역들도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훈의 달 쓸쓸히 떠난 50대 국가유공자

숨진 지 한달만에 발견

서부경찰, 국립묘지 안장 도와

오후 5시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약취가 심하게 난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군 북부 시절 총기 난사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50대 국가유공자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원룸 주인 등 주변인의 진술과 심하게 부패한 이씨의 시신 상태로 미뤄 볼 때 숨진 지 한달 이상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찰은 원룸에서 이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 1980년대 초 군복무 도중 총기난사 사고로 전상을 입고 자신도 다리에 총상을 입은 뒤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30년 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5년 전부터 가족 곁을 떠나 원룸에서 혼자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12575	1	여주시 시청로84, 6동 4층 406호 [선원동, 아파트]		146,000,000 146,000,000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10135	1	여주시 율촌면 산수리 산80-2 3206㎡ 동소 산80-3 3069㎡ 동소 산80-7 237㎡	임야	44,236,500 44,236,500	일괄매각, 일부송전 및 송전선로가 소재
2017타경 12216	1	여주시 돌산동 평사리 산64-9 543㎡ [안원선지분543분의33전부]	임야	1,089,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017타경 12674	1	동소 산64-15 992㎡ [안원선지분992분의330.5전부]	임야	18,177,5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017타경 12735	1	고흥군 도양읍 관리 2047-3 1959㎡	답	21,54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2971	1	고흥군 곡역면 석봉리 산15 32826㎡ [강성임지분32826분의9917전부,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임야	33,717,800	연고미상분묘3기소재, 갈나무매각제외
2017타경 13158	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056 1008㎡ 동소 202-5 268㎡ 동소 202-6 188㎡ 동소 202-7 616㎡ 동소 202-9 169㎡ 동소 202-10 328㎡ 동소 202-11 68㎡ 동소 202-12 253㎡ 동소 202-13 452㎡ 동소 202-14 139㎡ 동소 202-15 615㎡ 동소 202-16 673㎡ 동소 202-17 101㎡ 동소 202-18 38㎡ 동소 202-19 73㎡	전	1,205,030,000 1,205,030,000	일괄매각, 목책1,3~11농지취득자격증명요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7타경 13158	1	동소 202-20 612㎡ 동소 202-21 504㎡ 동소 202-22 425㎡			